

지역 매 아리



완주군, 농업기계 사고 예방 등화장치 200여대 무상지원 2월1일까지 각 읍면서 신청

완주군이 농업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화장치를 무상 지원한다. 완주군은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과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 농경지를 경작하는 고령농가 등을 우선으로 선정해 200여 농가에 등화장치를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등화장치는 낮에 빛을 흡수해 야간에 자동적으로 빛을 발하는 시스템으로 종전 전지식보다 한층 더 견고해 먼 거리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다. 완주군은 경운기, 트랙터 2종에 대해 2월1일까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윤 농기계팀장은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까지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완료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여건 속에서 농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해 첫 정기회의 개최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새해를 맞이하여 15일 신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자체사업 평가 분석, 운영 세칙 제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발전적인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는 너의 입학을 축하해 초등학교 입학생 학용품 지원 사업, 저소득층 시원한 여름나기 에어컨 지원 사업, 추석 명절 행복꾸러미 선물 지원 사업, 어버이날 떡 케이크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호길 신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신풍동 관계자는 "2019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파트 르네상스사업 모집

완주군, 31일~2월 11일까지 접수...아파트형 대표·총무 등 활동비 지원

완주군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내달부터 모집한다. 15일 완주군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체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은 5년째로, 올해는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사업유형을 기존 5개에서 2개로 간소화 했다. 활동지원 사업은 아파트형(1개 단지 아파트 전체 주민화합 모임), 공동체형(아파트 주민 프로그램 모임)이다. 시설지원 사업으로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형(북카페, 사랑방 등)과 커뮤니티 공간 기능보강형(바다난방, 화장실 보수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형에 한해 공동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온 대표, 총무 등 실행인력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비도 마련했다. 그동안 아파트형 공동체 대표나 총무들은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프로그램 준비, 커뮤니티 공간 관리, 회계서류 작성, 공동체 각종 행사 참여 등을 봉사로 진행해왔다. 완주군은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소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완주군이 주민들의 공동체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내달부터 모집한다.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군청 공동체 활동과에서 접수 받으며, 신청자격은 군 아파트 소재 주민협의체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설명회는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봉동, 웅진, 이서, 삼례, 상관 5개 권역에서 거점별로 실시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5년차를 맞은 아파트 르네상스는 그동안 이웃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체가 함께 역량을 키우고 자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사업유형 중 사회적경제 예비형(전문자격증반)과 아파트 네트워킹형(지역사회 공헌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과는 별도로 오는 3월 중 공모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주민중심 맞춤형 건강지원 박차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지원 활발

완주군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됐던 17개 사업 분야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왔으며, 완주군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기반으로 총 12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12개 사업은 금연,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등이다. 완주군은 이들 사업을 통합적, 유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지역, 주민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비만예방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비만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흡연 주민이 많은 경우에는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방식이다. 특히 완주군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근거로 금연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3개 사업 영역의 중요성이 커져 이를 핵심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기술지원, 교육, 정보제공 등 사업 자문 역할은 수행하는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교월동, 2019년 노일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 실시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9년 노일일자리사업(공익형 일자리)을 조기 추진 예정이다. 지난 7일~11일(5일간) 참여자 신청접수를 받고 15일경 참여자(30명)

를 선발하여 25일(예정)시작으로 약 9개월간 운영한다. 노일일지리는 3개 조로 편성하여 1일3시간 월30시간으로 1인당 월27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2019년에는 작년보다 노인일지리를 확대하여 추진하며,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경로당급식도우미, 경로

당 환경정비 일지리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과거 단순 합터역할만 하던 경로당을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식사해결과 경로당 내·외부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성덕면은 경로당 26개소(그룹-홈)에서 마을주민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성덕면,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 펼쳐

김제시, 주민들 민원 건의사항 수렴 등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2019년을 맞이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현안사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면정을 펼치기 위해 마을 사랑방인 경로당 26개소(그룹-홈)에서 마을주민과 직접 만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움츠러드는 사회적경제 분위기 속에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농한기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맞추어 직접 현장을 찾아감으로써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챙겨 해소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면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룹-홈을

점검해 이용자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서로 소통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했으며, 겨울철 화재 및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 변경 운영비 지원내용 등을 설명했다. 각 마을별로 수렴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장·단기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직접 알려주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적극적인 면정과 발로 뛰는 마음으로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다닐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더욱 주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17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김제시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김제시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2019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절차로써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성산지구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설명,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인 호원대 유희중 교수, 전주대 정철모 교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맥의 관대환 박사, 동진계 동농협력사업단의 최재문 단장이 초청되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등을 목표로 도심형 거점공간, 도시재생아울림 플랫폼, 경관거리 및 광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김제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성산지구가 다음 달 예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